



## 미 증시, 실적 및 IT 업종 호재에 주목하며 상승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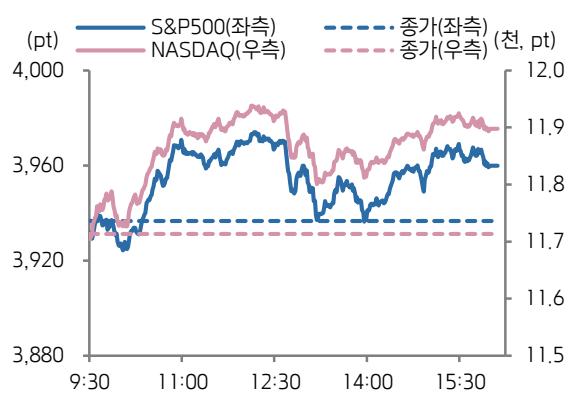
20 일(화) 미국 증시는 가입자수 서프라이즈에 따른 넷플릭스(+7.4%) 급등 효과, 차주 실적 발표를 앞둔 빅테크주들의 실적 기대감, 미 상원의 반도체 육성법안 통과 기대감 등에 힘입어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 마감(다우 +0.15%, S&P500 +0.59%, 나스닥 +1.58%, 러셀 2000 +1.59%).

미 상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530 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육성법안(CHIPS)'을 1 차 의결. 해당 법안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향후 10 년간 중국을 포함한 비우호적 국가에 반도체 건설 금지, 미국 내 팹 건설 등 내용을 포함.

미국 6 월 기존주택매매는 전월대비 -5.4%(예상치 -1.1%, 전월치 -3.4%) 하락하며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 5 개월 연속 감소. 반면 기존주택 판매 중간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3.4% 상승한 41 만 6 천달러로 사상최고치 기록. 집계측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이 짧은 시간에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고 지적. 독일 6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2.7%(예상치 33.7%, 전월치 33.6%) 상승, 전월대비 0.6%(예상치 1.5%, 전월치 1.6%) 상승하며 예상치 소폭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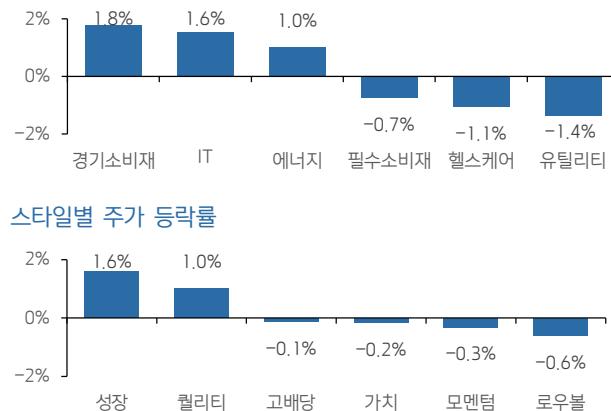
업종별로 경기소비재(+1.8%), IT(+1.6%), 에너지(+1%) 업종이 상승, 유틸리티(-1.4%), 헬스케어(-1.1%), 필수소비재(-0.7%) 업종은 하락. 전일 넷플릭스(+7.34%) 신규 가입자수 감소폭이 예상치를 하회한 이후 3 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에 추가 강세, 경쟁사인 디즈니(+3.75%) 등 커뮤니케이션 업종 동반 강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0.8%)는 배터리와 기타 부품의 공급부족으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EPS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간외로 상승.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지수	가격	외환시장			
			변화	지수	가격	
S&P500		3,959.90	+0.59%	USD/KRW	1,312.73	-0.06%
NASDAQ		11,897.65	+1.58%	달러 지수	107.03	+0.33%
다우		31,874.84	+0.15%	EUR/USD	1.02	+0%
VIX		23.88	-2.53%	USD/CNH	6.77	+0.01%
러셀 2000		1,827.95	+1.59%	USD/JPY	138.25	+0.03%
필라. 반도체		2,872.96	+2.4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919.27	+0.89%	국고채 3년	3.288	+10.3bp
<b>유럽, ETFs</b>				국고채 10년	3.354	+10.9bp
Eurostoxx50		3,585.24	-0.06%	미국 국채 2년	3.227	-1bp
MSCI 전세계 지수		616.02	+0.6%	미국 국채 10년	3.027	+0.6bp
MSCI DM 지수		2,628.34	+2.3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79.94	-0.06%	WTI	99.88	-0.85%
MSCI 한국 ETF		58.26	-0.73%	금	1717.7	-0.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2.8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2. 장중 원/달러 환율 및 유로화 환율 변화
3. 한국의 7월 20일까지의 수출 결과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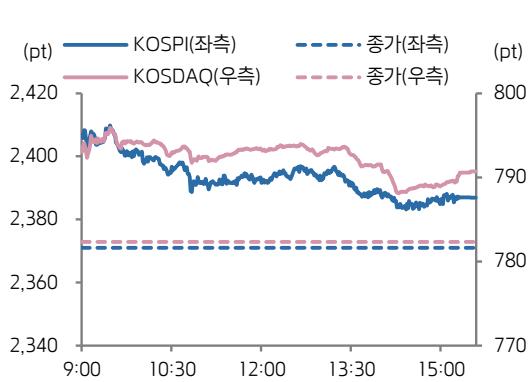
최근 주요국 증시 및 개별 기업들의 이익 전망에 부담이었던 달러화 강세의 경우, 침체 장기화 우려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선호 축소 등에 힘입어 진정되는 모습이지만(7월 초 109pt 선 터치 후 현재 106pt 선),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는 달러 인덱스 내 약 5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의 변동성이 ECB 통화정책 회의,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 재개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 전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 원 넘게 급락했다가 약보합 마감한 배경도 수입업체 결제수요, 위안화 약세 이외에도 유로화 변동성이 상당부분 영향을 가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된 블랙아웃기간에 들어간 상태에서 차주 FOMC 이벤트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 이를 종합해보면, 현재 주요국 증시는 미국 6월 CPI 쇼크를 소화하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환율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1일 ECB 통화정책회의(25bp vs 50bp, 50bp 유력) 및 28일 FOMC(75bp vs 100bp, 75bp 유력)를 소화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존재.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및 성장주 급등 효과에도 달러화 강세 경계심리로 장중 상승폭을 반납한 채로 마감한 가운데(코스피 +0.7%, 코스닥 +1.1%), 금일에도 ECB 회의 대기심리 등으로 지수 상단은 제한된 채 개별 업종 및 종목 간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장중에는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변화, 한국의 7월 수출(~20일) 결과,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현대 모비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이슈에 영향을 받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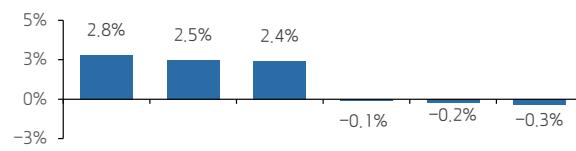
한편, 장 마감 후 발표된 테슬라(+0.8%)의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EPS 2.3, 예상 1.8)를 기록했으나 가이던스 발표 전인 만큼 시간외 주가는 1% 대내외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를 감안 시 국내 2차전지 포함 전기차 관련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반면, 중국의 6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면 봉쇄 완화, 부양책 효과 등으로 연초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5월 -9.4%YoY → 6월 +9.2%),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관련 IT 주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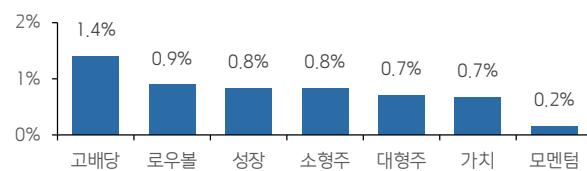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